

제11회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 국제학술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학술교류회 차장 이서영

2023년 8월 26일(토) 일본 가고시마대학에서 제11회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 국제학술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측 학회로부터 7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사회과 수업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테마를 가르치기'라는 주제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제11회 국제학술교류회는 이전과 달리 한일관계 보다는 사회과 교육에서 다뤄야하는 어려운 내용이나 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양국 교사의 인식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교류에서는 각 학회로부터 추천된 2팀씩 발표하고 2명의 지정토론자가 한일 양국 발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에서는 가고시마대학교의 이와사키 유스케 선생님,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히로시마대학교) 타타라 유스케 선생님께서 '가고시마현내 중학교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특공"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특공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조직적으로 행해진 군사 작전으로 가고시마현이 중요 거점이었고 현재 관련된 여러 자료관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사전 스터디 투어로 8월 25일(금)에 특공 캠프가 있었던 곳과 특공대원의 유서 및 그 당시 상황을 전시한 치란 특공 평화 회관(知覽特攻平和會館)도 둘러보았기에, 특공을 가르치는 것의 어려움에 동감했습니다.

도쿄도립오가와고등학교의 베키 모에카 선생님은 '사회과 교사가 논쟁문제를 가르치기 어려운 원인과 그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하여 직접 실천한 성찰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베키 모에카 선생님은 사회과 교사가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토대로 실천이 가능하고, 수업 실천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으며, 쟁점을 설정할 수 있는 지식,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논의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에서는 용인성북초등학교의 정태호 선생님, 춘천교육대학교의 홍미화 교수님이 '한국 초등 사회과에서는 일본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을 가르치기 어려운 까닭을 해결이 쉽지 않은 현상이고,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결혼을 기피하며, 교육내용으로서 인구감소 현상이 복잡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

하고,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구교육을 강화하며, 유기적으로 사회과교육과정과 인구교육을 결합시켜 수업으로 실천하는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공주대학교의 유종렬 교수님께서 '한국 교사는 어떤 사회적 쟁점과 학습 주제를 가르치기 어려워하는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학교에서 쟁점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으로 한국 교사들의 사회적 쟁점 수용 요인 분석, 교사 특성별 사회적 쟁점 수용도 비교, 그리고 사회적 쟁점의 중요도, 수용도, 수업 선호도 간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 교사들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에 비해 수용 정도나 수업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쟁점을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요인에는 사회 문화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네 편의 발표에 대해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에서는 미야자키대학교의 요시무라 코타로 선생님,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허수미 교수님이 지정토론을 담당하였습니다. 두 명의 지정토론자 모두 네 편의 발표에 동감하며, 주제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 발표자는 자신의 연구에 근거하여 질문에 답변하고 논점에 대하여 보충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교류회는 각국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주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의 사회과교육 방향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와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는 국제학술교류를 통하여 국경을 넘어 사회과교육에서의 고민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가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기획]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김종성 (히로시마대학)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 쿠와바라 토시노리(桑原敏典) (오카야마대학)

[한일교류회 참가기] 한국과 일본, 국경을 넘어 사회과교육의 고민을 공유하다.

김영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2023년 8월 일본 가고시마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일본전국사회과교육학회의 연구교류회는, 대학원 진학 후 사회과교육을 공부하며 처음으로 참가한 한일교류회였습니다. 이번 참가 경험은 사회과교육에 대해 이전까지 깊게 고민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대해 관점을 가져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스터디 투어에서의 현장과, 연구교류회라는 논의의 장을 통해 사회과교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양국 교사들의 수업 장면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교류회에서 주로 다뤄졌던 연구 내용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주제들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사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내외 민원 등, 한국에서도 고민되는 주제였던 만큼 이번 연구교류회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국가이지만, 교류회 등 여러 의견 나눔의 시간을 통해 사회과교육에서 갖는 고민은 상당 부분 유사할 수 있겠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의 발표에서 다뤄진 '특공'과 관련된 연구는, 사전 스터디 투어에서의 삼각 병사 유적 탐방과 평화회관 방문 등을 통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공'은 특정 주제를 다루기 어렵게 하는 양국 공통의 요인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기에, 실제 교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초점을 두게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본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만약 한국 교사 입장에서 비슷한 내용을 교실에서 다루게 된다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교류회를 통해 특정 주제가 갖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게 되었고, 이들 중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어려울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측 발표를 통해 논의되었던 것처럼 다원화된 가치를 반영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인 혹은 학교 문화적인 측면 외에도 분명 더 다양한 기준들에 의해 훨씬 많은 주제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여러 연구들의 맥락과 같이, 가르치기 어려워지는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다면, 사회과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다차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일 연구교류회는 국경을 넘어 서로가 가진 사회과교육의 고민을 공유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어려움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이번처럼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만나고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깊이 있게 나누는 현장에 와보니 느낀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명의 참가자로서, 나아가 사회과교육을 공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향후 교류회 등에서 더욱 질 높은 연결과 성장을 위해 앞으로 사회과교육의 더욱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고 탐구해가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감 작성의 기회를 빌려, 이번 한일교류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